

受容者の 社會的 屬性과 매스 미디어 接觸度

—清州市를 對象으로한 新聞記事와 라디오프로그램의 接觸度에 관한 調查報告—

金 石 薰

<目 次>

- | | |
|--|--|
| <p>I. 序 言</p> <p>1. 調查方法</p> <p>2. 目 的</p> <p>3. 作業方法</p> <p>가. 接觸度</p> <p>나. 讀者 및 聽取者</p> | <p>II. 調查結果</p> <p>1. 新聞記事</p> <p>2. 라디오 프로그램</p> <p>III. 맺 음</p> <p>IV. 表</p> |
|--|--|

I. 序 言

1. 調查方法

本調査의 對象地域은 忠北 清州市로 選定하고 家口主 1,015名을 對象으로하여 質問紙를 使用한 面接을 實施하였다.

清州市를 調查對象地域으로 選定한 것은 清州市가 人口로 보아 中都市의 性格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비교적 近距離에 있기 때문에 調查施行에 편리하고 費用이 절약될 수 있다는 實際의인 점도 考慮되었다. 그러나 清州市가 社會經濟的 構造에 있어 우리나라의 中規模 都市의 典型이라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점이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中都市의 典型이 어떤 社會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한 確定된 基準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清州市는 1962年에 實施된 行政區域擴張에 따라 市 周邊의 農村地域이 市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新編入地域은 行政上으로는 清州市에 속하고 있으나 農家戶 數가 過半을 차지하므로 都市의 性格보다는 農村에 더가까운 性格을 지닌 地域이어서 이 編入地域은 調查對象에서 排除하였다.

清州市는 1966年末 現在 29個洞으로 되어 있으며 家口數는 총 27,730家口이다. 이 중 編入地區 6個洞을 除外하면 23個洞에 家口數는 19,325家口가 되는데, 이들 家口의 家口主가 母集團으로 規定되었다. 母集團이 된 23個洞의 總 711個班을 抽出單位로 하여 系統的 抽出方法(Systematic Sampling)으로 班을 抽出하고 이 標際된 班의 全家口主를 調查對象으로 하였다.

家口主는 해당가구를 실질적으로 代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그 選定基準으로 ① 家計를 主로 擔當하는 사람, ② 家口員中 意見形成에 影響力을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데 두었다.

標本의 크기는 淸州市 全家口의 약 20分의 1에 해당하는 1,050家口로서 실제 面接한 家口主의 數는 1,015名이었다. 나머지 35名은 長期出他中이거나 面接을 거절한 경우였다.

調査를 실시한 期間은 1968年 7月 12日부터 21日까지 10日間이었으며, 本調査를 위한 豫備調査가 同年 6月 29, 30日 兩日間에 水原에서 실시했다. 面接面은 新聞大學院 및 淸州大學學生들로서 이들에게는 事前 調査訓練을 指導하였다.

참고로 67年末 現在의 淸州市公報集計에 依하면 編入地域을 除外한 本調査에서 母集團으로 한 地域의 新聞을 家口當 0.32部(즉 約 1家口當 1部)가 普及되어 있고 放送受信機는 平均 2家口마다 1대로 普及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調査 目的

送信者(communicator)의 手中을 떠난 미디어의 內容이 受容者(audience)에게 傳達되려면 우선 미디어와 受容者間의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兩者間의 接觸關係를 살펴보는 일이 必要하게 된다. 周知되고 있는 바와 같이 受容者는 단순히 固定的이며 被動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디어를 取扱選擇하고 自身の 目的을 위해 그것을 利用하며 자신의 見地에서 그것을 評價하고 解釋하는 能動的인 存在이므로 受容者의 個人的 經驗이나 퍼스낼리티의 差異 및 社會的 背景에 따라 미디어와의 接觸行爲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受容者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서 嗜好나 關心을 갖는 정도도 相異할 것이다. 즉 어떤 新聞記事나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은 대단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대하는 반면 또 다른 記事나 프로그램은 別로 흥미나 관심을 갖지 않고 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 같이 新聞을 읽거나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가 선택하는 내용과 거기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相異할 것이다.

本調査에서는 受容者의 相異한 社會的 背景에 따라 新聞記事 및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接觸樣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問題를 量的인 面뿐만 아니라 受容者가 갖는 關心의 程度도 包含하여 比較해 보려고 試圖하였다.

따라서 本調査에서 使用된 接觸度의 뜻은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대한 관심의 정도까지도 포함된 量과 質의 兩面에 걸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매스·미디어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新聞과 라디오 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3. 作業方法

가. 接觸度

接觸度는 다음과 같은 方式으로 導出되었다. 즉 新聞記事 및 라디오 프로그램 각각 14씩의 項目을 設定하여 新聞記事의 경우 各개의 항목에 (1)「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는 편」, (2)「대강 훑어 보는 편」, (3)「안 보는 편」의 3가지 응답 가운데서 응답자로 하여금 한개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는 (1)「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듣는 편」, (2)

「약간 듣는 편」, (3) 「안 듣는 편」의 3個 應答中에서 하나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記事와 프로그램이 모두 同一하게 (1)의 應答에는 3, (2)의 應答에는 2, (3)의 應答에는 1의 比重을 주어 각기 그에 答한 應答數에 이 수를 곱하였 記事別 프로그램별로 合計를 낸후 그 合計된 숫자를 다시 無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應答자수(이 作業에서는 전체 應答자를 新聞讀者 및 라디오 聽取者 만으로 限定 하였다. —後述 參照)로 나누어서 얻어진 숫자를 接觸度로 삼았다. 예컨대 어떠한 한 記事 또는 프로그램에서 接觸度가 3으로 나타났다면 그 記事(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應答자 全員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읽는(또는 듣는)편」이라고 간주 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接觸度가 1이 되는 경우는 應答자 全員이 그 記事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 보는 편」이거나 「안 듣는 편」이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本作業에서는 接觸度 2를 基準으로 하여 接觸度가 2以上인 記事(또는 프로그램)은 讀者(聽取者)에게 關心을 많이 보이는 편으로, 그리고 그 以下の 것은 독자 또는 청취가의 관심이 적은 편으로 간주하였다.

나. 作業對象——讀者와 聽取者의 規定

接觸度を 導出하기 위한 本作業에서는 新聞讀者와 라디오 聽取者들 만으로 그 作業對象으로 限定해야 했기 때문에 本調査의 1,015名의 全體 應答者中 약 57.6%에 해당되는 585名만이 新聞記事 接觸度を 求하는 作業에 取及對象이 되었으며 나머지 430名(약 42.4%)은 非讀者로서 本作業에서 除外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新聞讀者라 함은 어떠한 經路를 통해서든지 「週 3日以上 新聞을 읽는 사람」을 말한다.

프로그램 接觸度を 위한 作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1,015名의 本調査의 전체 應答者中 740名(약 72.90%)만이 聽取者로서 本作業對象으로 삼았으며 나머지 215名(약 21.10%)는 非聽取者로 規定되어 本作業對象에서 除外되었다. 라디오 聽取者和 非聽取者의 區分은 다음의 基準에 依하였다. 즉, 放送受信機(앰프包含)을 通하여 「거의 매일 듣거나」, 「자주 듣는 편」이라고 應答한 경우는 聽取者로, 그리고 「거의 안 듣는 편」, 「전혀 안 듣는 편」이라고 應答한 경우는 非聽取者로 各各 區分하였다.

이 作業에서는 讀者 및 聽取者의 여러가지 社會的 特性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되는 應答자의 年齡, 敎育程度, 職業 및 經濟生活水準의 4가지 變數로서 使用하였다. 經濟生活水準은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 본 결과 應答者 自身の 評價 대신에 面接員이 評價한 것으로 使用하였다.

특히 本調査의 資料處理過程中에서 우발적으로 생겨진 사고로 인하여 資料의 一部가 파손 逸失되어서 完全한 資料를 使用 提示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참고로 本作業의 對象 讀者 및 聽取者의 男女別 比率은 다음과 같다.

讀者	男	女
585名	545名	40名
100.00%	93.16%	6.84%

聽取者	男	女
740名	649名	91名
100.00%	87.93%	12.07%

Ⅱ. 調查結果

1. 新聞記事의 接觸度

앞의 作業方法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14個部分의 新聞記事에 대한 各各의 接觸度を 算出하여 系數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接觸度の 順位를 매겨보았다. 各 記事別 接觸度和 接觸度 順位는 <표 I>과 같은 結果가 나왔다.

여기에서 대체로 時事性和 뉴우스의 性格이 많은 記事일수록 높은 接觸度を 나타내며 時事性和 非뉴우스의 性格의 記事일수록 낮은 接觸度を 보여준다. 같은 뉴우스記事中에서도 地方소식이 가장 接觸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國內政治, 事件記事(事故, 犯罪等), 國際政治의 順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新聞의 讀者들은 國外情勢에 관한 뉴우스 보다는 國內情勢에 관한 뉴우스에, 全國의 뉴우스 보다는 그 지방의 뉴우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地域的인 次元에서 볼 때 讀者의 生活圈에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진 地域의 뉴우스 보다는 그곳에 近接한 地域의 뉴우스 報道에 더 높은 接觸度を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政治뉴우스記事(國內政治 및 國際政治 記事)에 관한 接觸도가 經濟 뉴우스記事와의 接觸도보다 높다. 國內政治記事의 接觸도는 2.54, 國際政治記事의 接觸도는 2.29 인데 비해, 物價時勢 및 經濟記事(施策 및 政策包含)의 接觸도는 각각 2.16 및 2.15 로 되고 있다.

社說은 接觸度 2.14 로 위의 物價時勢 및 經濟記事와 비슷한 接觸도를 나타낸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應答者에게 提示된 14個의 記事中*에서 接觸도가 上位에 있는 7個의 記事는 모두 非娛樂的이며 뉴우스的인 記事들이었다.

다음에 나머지 接觸도가 下位에 屬하는 7個의 記事中에서는 모두가 뉴우스的인 성격보다는 오락적 성격을 대표하는 기사들이며 연재만화의 경우(接觸度 2.01)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接觸度 1.92~1.48의 範圍內에 있다.

스포츠記事는 連載漫畫단을 제외한다면, 다른 娛樂的 性格을 갖는 記事들中에 가장 높은 接觸도를 나타내고 있다.

흥미있는 점은 여기서 記事에 해당되지 않은 유일한 項目인 廣告의 경우 接觸度 1.68 로서, 娛樂的 性格을 갖고 있는 家庭欄, 趣味欄, 連載小說 및 演藝記事보다 높은 接觸도를 보여준다.

* 廣告는 원칙적으로 記事로 볼 수 없는 것이나 新聞廣告에 대한 讀者의 接觸度 내지 關心度를 다른 記事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 포함시켰다.

가정란은 이들 娛樂的 性格을 갖는 記事中에서 接觸度 1.67로 中間의 位置를 차지하여, 接觸度 1.57, 1.55의 취미란과 연재소설보다 다소 높다.

演藝記事는 接觸度 1.48로 最下位에 있다. 이렇게 讀者가 新聞으로부터 演藝記事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되는 이유는 근래에 이러한 연예뉴스를 거의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중오락지 및 주간지의 보급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보아온 결과는 新聞이 갖는 機能 즉 娛樂的 機能보다는 報道的인 기능에 더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新聞의 독자들이 新聞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기사에 더 관심을 갖고 接하는가 하는 점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가. 讀者의 年齡別 新聞記事 接觸度

14個 記事中 年齡別 接觸度を 낼 수 있었던 資料는 9個에 限定되었다.

9個의 記事에 대한 年齡別 差異에서 생기는 接觸度の 傾向은 대체로 4가지 類型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讀者의 年齡이 높아질 수록 그에 비례하여 接觸度も 높아지는 記事, 둘째, 이와는 反對로 讀者의 年齡이 젊은 層으로 갈수록 接觸도가 낮아지는 記事, 셋째, 한두 연령층이 여타의 연령층보다 접촉가 높은 경우 및 넷째로는 年齡層에 따라 不規則한 傾向을 나타내는 記事로 區分된다. (<표 I-1> 참조)

物價時勢의 경우는 年老한 讀者層으로 갈수록 그 接觸도가 增大되어 20代年齡層에서 2.05인데 비해 60代以上の 年齡層에서는 2.38로 나타나 첫째 類型에 해당된다. 이와는 반대로 事件記事, 連載漫畫, 廣告, 趣味欄 및 演藝記事의 경우에는 年少層으로 내려 갈수록 接觸度も 一律적으로 漸增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興味記事 또는 娛樂的 性格의 記事의 경우는 老年層보다는 年少層에서 더 接觸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經濟記事, 社說의 경우는 餘他的 年齡層에 비해 30代와 40代의 中年層에서 높은 接觸도를 보여 준다. 이로써 다소 부족한감이 있으나 어느 정도 年齡層에 따른 接觸度の 傾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가정란의 경우는 하등의 연령차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讀者의 教育程度別 記事 接觸度

讀者의 教育程度別로 본 接觸度の 差異는 年齡別에서 나타나는 差異보다는 훨씬 단순한 傾向을 보여 준다.

10個의 記事中에서 사건기사와 물가시세란을 제외한 나머지 8個의 記事는 讀者의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接觸度も 上昇된다. 단지 廣告와 家庭欄의 경우에만 大學修學을 받은 層이 이에 약간 벗어나는 경향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 讀者의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新聞接觸度も 一般的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事件記事의 경우는 高等學校를 수학한 層이 2.64로 가장 높고 國民學校, 中學, 大學 및 한글해독의 順으로 나타난다. 物價時勢의 경우만이 이 경우에도 大學수학자層이 약간 일률적 경향에서 벗어나지만—— 讀者의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接觸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

I-2) 참조)

다. 讀者의 職業別 記事 接觸度

相異한 年齡 및 敎育程度가 서로 交叉되어있는 讀者의 職業的 特性에서는 接觸度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우고 있다. 또한 11個의 記事別 接觸度を 10個나되는 職業과 전부 결부시켜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各 記事에 따라 職業別로 나타나는 接觸度の 高低단을 대개 直線的으로 記述하는데 그치려 한다.

考察을 좀 더 容易하게 하기 위해 대체로 그 구성원이 主婦와 學生들이 포함된 無職과 分類된 職業外的 其他職業을 제외한 8個의 職業을 各 記事別로 職業間的 接觸度 順位를 作成하였다. (<표 I-3> 및 <표 I-4> 참조) 8個의 職業中 white collar 職業에 해당하는 회사원, 교사 및 공무원 직업에서 一般的으로 餘他的 職業보다 接觸도가 높다. 노동자 및 농업은 가장 낮은 傾向을 보이며, 기업주, 상업 및 영세상 등은 中間에 있다.

공무원은 餘他的 職業에 비해 지방소식, 연재만화, 가정란 및 취미란에 가장 높은 接觸順位를 나타내며, 회사원의 경우는 사건기사, 경제기사, 가정란 및 연예란에서 그리고 교사는 사실, 스포츠기사 및 취미란에 다른 직업에 비해 가장 높은 接觸度順位를 보여준다. 기업주는 광고에서 그리고 영세상은 물가시세에서 가장 높은 接觸順位를 보인다. 또한 自營의인 企業 즉 농업, 영세상, 상업, 기업가 등은 物價時勢에 他職業에 비해 높은 接觸度順位를 나타내며 廣告의 경우에서도 기업주, 상업, 영세상 등 商品을 供給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接觸度 順位 1~2.5로 되었으나 그 나머지 商品을 購得하는 立場에 있는 職業에서는 5~8의 낮은 接觸度 順位를 나타내는 것은 흥미있다. 따라서 다소 빈약한 위의 자료를 통하여서나마 讀者의 職業的인 特性에 依해서 記事別 接觸性向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라. 生活水準別 記事接觸度

讀者의 經濟生活 水準別로 나타나는 記事接觸度の 傾向은 年齡別 差異에서 처럼 대략 4가지 類型으로 나뉘 볼 수 있다. (<표 I-5> 참조) 事件記事 및 물가시세 및 연재만화에 있어서는 대체로 生活水準이 낮은 편이 더 높은 接觸도를 나타낸다. 國內政治, 國際政治, 經濟記事, 社說, 스포츠 및 취미란의 경우에는 生活水準이 높아질수록 接觸도가 增加된다. 지방소식은 中下層에서 接觸도가 가장 높으나 各層間的 接觸도는 別差異가 없다. 나머지 廣告, 家庭欄, 演載小說 및 演藝欄에서는 各層에 따르는 뚜렷한 傾向은 생겨나지 않으며, 演藝欄에서는 「中下」의 生活水準에 있는 層이 가장 높았다. 各層別로 두드러진 點은 經濟生活水準이 上層인 集團은 餘他的 層에 비해 經濟記事에 두드러진 接觸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中上層은 스포츠기사에, 中下層은 地方所息과 演藝記事에 대해서, 그리고 下層은 物價時勢에 대해 각각 다른 層보다 다소 높은 接觸도를 보여 준다.

2. 라디오 프로그램의 接觸度

라디오 프로그램도 新聞記事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14個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各各의 프

로그래에 대한 接觸度를 낸후 接觸度가 높은 것으로부터 차례로 接觸度順位를 내어보았다. (〈표 II〉 참조)

新聞의 경우에는 지방소식의 接觸度 2.60으로 가장 높았으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방소식은 接觸度 2.57로 접촉도 자체는 신문과 그것과 별차가 없으나 14개 프로그램 중 접촉도 2.80으로 가장 높았던 뉴스의 경우보다 接觸度가 훨씬 낮으며, 接觸度 2.64에 있는 일기예보 보다는도 낮아 接觸度順位가 3位로 되고 있다. 따라서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新聞보다도 더 신속하게 最近의 情報를 알려 주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가장 接觸度가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높은 接觸度를 보여 주는 프로그램은 대중가요 및 연속극으로서 兩者의 接觸度는 각각 2.24로 같았다. 이러한 大衆娛樂 프로그램이 비교적 높은 接觸度를 얻고있는 것은 라디오의 신속성 있는 報道의 機能과 함께 그에 버금하는 娛樂의 機能을 잘 말해 주는 것 같다.

물가시세는 接觸度 2.18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新聞에서 나타난 接觸度 2.16과 아주 近似한 接觸도와 接觸度 順位가 나오기 있다. 시사해설은 接觸度 1.99로 14個 프로그램中 接觸度나 接觸度 順位에 있어 中間의 位置를 차지한다. (스포츠中繼는 接觸度 1.96으로 新聞에 있어서 스포츠記事의 接觸度 1.92와 近似한 數值를 나타낸다.

좌담, 상담프로, 사회탐방 및 외국어강좌 등의 敎養프로그램은 最下位의 接觸度를 보여 주며, 고전음악을 제외한다면 뉴스, 오락, 음악 및 스포츠등의 諸프로그램에 비해 接觸度 順位가 下位로 쏠리고 있다. 특히 外國語講座는 14個 프로그램中 接觸度가 1.21로 最下位를 占한다.

같은 音樂 프로그램中에서도 대중가요는 接觸度 2.24, 민속음악은 1.26, 그리고 고전음악은 1.50으로서 3個의 프로그램의 接觸度는 상당히 差異가 있다.

이상에서 보아 온 것과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接觸度에서 나타나는 一般的인 傾向을 뉴스, 일기예보, 지방소식 등 뉴스 프로그램이 接觸度가 가장 높고 다음은 대중가요 및 연속극과 같은 娛樂프로그램이며, 물가시세, 시사해설 및 스포츠中繼가 中間에 그리고 좌담, 상담, 사회탐방 및 외국어강좌 등 敎養프로그램이 가장 낮은 接觸度를 나타낸다. 音樂프로그램 가운데서 대중가요는 接觸度가 비교적 높게, 민속음악은 中間에 그리고 고전음악은 낮은 接觸度를 보인다.

가. 年齡別 프로그램 接觸度

聽取者의 年齡層에 따른 프로그램別 接觸度는 14個 프로그램中 8個의 프로그램에 한해서 資料의 整理가 가능하였는 바 不充分한 資料이나마 8個의 프로그램에서 年齡層에 따라 나타나는 傾向을 3가지 類型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표 II-1〉 참조)

먼저 20代부터 60代(또 그 이상의 연령도 포함)까지의 5個의 年齡層 가운데 그 中間位置

에 있는 40代를 中心으로 해서 接觸度가 拋物線 또는 逆拋物線의 形態를 나타내는 類型, 둘째로 老年層으로 갈수록 接觸度가 增加하는 類型, 셋째 이와 반대로 젊은 層으로 갈수록 接觸度가 上昇되는 類型이다.

지방소식과 상담프로는 40代와 30代를 頂上으로 하여 20代와代의 兩端의 年令層으로 接觸度가 下降하는 拋物線型을 보이며, 연속극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兩端의 年令層으로 가면서 接觸度가 上昇되는 逆拋物線을 나타낸다.

민속음악과 좌담의 두 프로그램에서는 老年層으로 갈수록 接觸度가 높아지며, 반대로 사회탐방, 고전음악 및 외국어강좌는 젊은層일수록 接觸度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외국어강좌의 경우에는 50代 以上の 年齡層에서는 聽取者가 全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教育程度別 프로그램 接觸度

라디오 聽月者의 教育程度別로 나타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接觸度의 樣狀에 있어서도 新聞讀者에서 보여 지는 傾向과 대개 비슷하다. (〈표 II-2〉 참조)

日氣豫報는 대체로 高等學校以上の 수학을 받은 聽取者層 보다는 中學以下の 수학을 한 層에서 다소 더 높은 接觸度를 보인다. 연속극은 한글해독부터 중학교에 걸친 3個 聽取者層에서 接觸度가 共히 2.32가 되며 다른 層보다 약간 높고 大學교육을 받은 層은 2.04로 그 중 낮다. 민속음악은 문맹정취자 接觸度 2.55로 餘他的 教育別 集團에서 가장 높으며 接觸度 1.57로 가장 낮은 國民學校를 다닌 聽取者層과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그 외에 프로그램 즉 지방소식, 좌담, 상담, 사회탐방, 고전음악 및 외국어강좌에서는 대체로 聽取者의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接觸度가 높아지는 傾向을 보인다. 단 대학교육을 받은 聽取者層은 지방소식, 좌담 및 상담프로에서 고등학교교육을 받은 層보다 약간 낮은 接觸度를 나타낸다. 따라서 新聞讀者의 경우에서와 같이 聽取者에 있어서도 教育程度가 높은 層이 교육정도가 낮은 층보다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더 높은 接觸度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 職業別 프로그램 接觸度

聽取者의 職業別로 볼 때 자료정리가 가능하였던 9個의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직업에 있어서나 共通的으로 接觸度가 높은 프로그램은 일기예보, 지방소식 및 연속극이며, 反面 一般的으로 接觸度가 낮은 傾向을 보여 주는 것은 외국어강좌와 고전음악이었다. 그외의 민속음악 좌담, 상담 및 사회탐방은 정취자의 직업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接觸度는 대체로 1.5~2.0 사이에 分布되고 있다. (〈표 II-3〉 참조)

일기예보는 농업과 공무원 및 노동자는 餘他的 職業을 가진 聽取者層보다 다소 높은 接觸度를 보여 주며, 교사는 다른 직업층보다 接觸度가 떨어져 가장 낮았다. 지방소식에서는 공무원과 교사 聽取者層이 다른 職業層보다 약간 높으며, 농업과 영세상이 약간 낮은 接觸度를 보인다. 연속극에 있어서는 영세상과 농업 및 노동자이 높았고 회사원, 기업주, 교사가

났으며, 회사원과 기업주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接觸度는 接觸度 2미만에 있다. 민속음악은 기업주가 接觸度가 가장 높았으며 교사가 가장 낮다. 이와 비슷하게 좌담의 경우에는 공무원 의청취자층의 接觸度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노동자 청취자층에서 가장 낮다. 상담프로는 노동자와 회사원의 경우가 가장 接觸度가 낮다. 사회탐방은 화이트칼라職인 공무원, 회사원 및 교사와 기업주가 모두 1.7代의 접촉도를 나타내며 다른 직업들은 이 보다 약간 처지는 접촉도를 보인다. 모든 職業層에서 일률적으로 저조한 接觸度를 나타내는 외국어강좌에서는 교사층이 가장 높은 접촉도를 보이며,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층에서는 극히 낮은 접촉도를 보여 준다. 직업별 接觸度比較에서, <표 II-3>에서는 기타직업과 무직을 참고로 포함시켰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記述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기타 직은 學生이 많이 포함되었고, 무직의 경우는 가정주부 또는 여자응답자들이 다수 포함되어서 다른 區分된 직업과는 너무 異質의인 성격은 갖고 있으므로 이 두 group은 考察對象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상에서 記述한 바를 다시 청취자의 職業層에 따른 特性別로 살펴보면, 공무원은 餘他の 職業層에 비해서 지방소식과 좌담에, 높은 接觸度를 보이며, 교사는 고전음악과 외국어강좌에 다른 직업층 보다 비교적 높은 접촉도를 나타낸다. 반면 일기예보와 민속음악에는 他職業層 보다 비교적 낮은 接觸度를 보인다. 기업주는 민속음악에 있어서는 접촉도가 가장 높았으나 연속극과 고전음악에서는 가장 낮았다. 상업에 종사하는 청취자들은 8個 직업층 가운데서 각 프로그램에 있어 극단적인 접촉도를 보이지 않고 언제나 비교적 中間에 머무르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영세상의 경우는 상담프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취자층은 일기예보에서 직업층 청취자층 가장 높은 接觸度를 나타내고 있다.

라. 生活水準別 프로그램 接觸度

聽取者의 經濟的 生活水準別로 본 각 프로그램의 接觸度는 대별하여 3個의 類型으로 나타난다. (<표 II-4> 참조)

먼저 4個層 가운데서 어느 한層이 다른 3개 층에 비해 接觸度가 差異가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지방소식과 상담프로의 경우 下層에서 다른 3個層에 비해 接觸度가 약간 떨어지는 편이며 다른 3個層의 接觸度는 아주 近似한 接近值를 보여 준다. 반면, 민속음악과 좌담프로에서는 中上層이 接觸度가 1.91 및 1.85로서 다른 3個層의 接觸度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둘째로, 일기예보는 각層이 모두 2.6代의 극히 近似한 接觸度 보여 준다.

셋째로, 대중가요, 연속극 및 불가시세의 3個 프로그램에서는 應答聽取者의 經濟性 生活水準이 낮은 層으로 갈수록 接觸度가 一律적으로 上昇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끝으로, 뉴스, 시사해설, 스포츠중계, 사회탐방, 고전음악 및 외국어강좌 등의 6個 프로그램에서는 위의 경향과는 반대로 聽取者의 生活水準이 높은 層으로 가게 될 수록 점차 接觸度가 增加하는 경향을 보인다.

Ⅲ. 맺 음

以上에서 여러 미디어中 新聞과 라디오 만을 獨立變數로 삼고 그에 대한 受容者의 接觸傾向을 概觀하였다. 分析作業에 適切하게 利用될 수 있는 資料는 完璧한 것이 못되었으며 다소 缺陷이 있는 것을 그대로 使用하였다. 따라서 分析結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으며, 本主題에 대한 一部 領域만을 취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分析結果는 어떠한 새로운 發見點이나 問題點을 밝혀 냈다가 보다 이미 常識的인 일로 되어 있거나 既和의 事實을 補強 내지는 反響한 것에 불과하며, 新聞과 라디오에 관한 受容者의 接觸樣狀의 概觀적인 傾向을 記述하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新聞記事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受容者의 特性(本作業에서는 年齡, 教育, 職業, 生活水準의 4가지 면에서 考察하였다)別로 볼 때 勿論 記事別, 프로그램別로 多樣하기는 하나 어떤 一般的인 傾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本作業은 이 方面에 關한 本格的인 調査研究를 爲한 하나의 方法探索에의 試圖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표 I> 新聞記事別 接觸度

記 事 區 分	接觸度 順位	接觸度	記 事 區 分	接觸度 順位	接觸度
지 방 소 식	1	2.60	스 포 츠 기 사	9	1.92
국 내 정 치	2	2.54	광 고	10	1.68
사건기사(범죄·사고등)	3	2.51	가 정 란	11	1.67
국 제 정 치	4	2.29	취 미 란(바둑·낙시등)	12	1.57
물 가 시 세	5	2.16	연 제 소 설	13	1.55
경제기사(시책·정책등)	6	2.15	연 예 기 사	14	1.48
사 설	7	2.14			
연 제 만 화	8	2.01			응답자수 (585)

<표 I-1> 年齡別 新聞記事 接觸度

記 事	接 觸 度	平 均 接 觸 度	年 齡 區 分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사 건 기 사		2.51	2.57	2.57	2.51	2.39	2.25
물 가 시 세		2.16	2.05	2.15	2.13	2.34	2.38
경 제 기 사		2.15	2.11	2.23	2.20	2.10	1.90
사 설		2.14	2.11	2.15	2.23	1.99	1.97
연 제 만 화		2.01	2.26	2.16	1.96	1.57	1.44
광 고		1.68	1.88	1.63	1.64	1.71	1.50
가 정 란		1.67	1.72	1.64	1.70	1.61	1.63
취 미 란		1.57	1.70	1.61	1.57	1.31	1.44
연 예 기 사		1.48	1.76	1.49	1.42	1.33	1.61
응 답 자 수		계 585 (무응답 2 포함)	(100)	(210)	(171)	(70)	(32)

<표 I-2> 教育程度別 新聞記事 接觸度

記事	接觸度	平均 接觸度	教育程度				
			한글해독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대 학교
사건기사	사설	2.51	2.21	2.55	2.51	2.64	2.43
물가	세계사	2.16	2.45	2.25	2.28	1.86	1.98
경제	기사	2.15	1.62	1.87	1.99	2.22	2.33
사설		2.14	1.41	1.86	2.04	2.20	2.44
연재만화		2.01	1.69	1.82	1.97	2.08	2.15
스포츠기사		1.92	1.39	1.58	1.74	2.02	2.21
광고	고교	1.68	1.45	1.71	1.63	1.78	1.64
가정	란	1.67	1.31	1.59	1.76	1.75	1.64
취미	란	1.57	1.21	1.32	1.53	1.59	1.83
연예	기사	1.48	1.24	1.34	1.49	1.55	1.53
응답자수		계 585 (무응답) 5 포함	(29)	(97)	(109)	(181)	(164)

<표 I-3> 職業別 新聞記事 接觸度

記事	接觸度	平均 接觸度	職業									
			공무원	회사원	교사	기업주	상업	영세상	노동자	농업	기직	타업
지방소식		2.60	2.77	2.59	2.52	2.70	2.66	2.52	2.48	2.38	2.50	2.47
사건기사		2.51	2.58	2.64	2.46	2.00	2.57	2.37	2.51	2.34	2.80	2.55
물가	세계사	2.16	2.12	2.12	1.68	2.35	2.39	2.44	2.17	2.41	1.65	2.09
경제	기사	2.15	2.24	2.35	2.20	2.30	2.24	1.81	2.09	2.00	2.00	1.76
사설		2.14	2.30	2.27	2.32	2.15	2.02	1.74	1.80	1.97	2.67	2.22
연재만화		2.01	2.25	2.24	1.95	1.85	1.88	1.85	1.99	1.86	2.18	1.71
스포츠기사		1.92	1.97	2.07	2.14	1.65	1.82	1.67	1.86	1.75	2.17	1.84
광고	고교	1.68	1.56	1.78	1.61	1.90	1.81	1.81	1.61	1.55	1.67	1.59
가정	란	1.67	1.74	1.74	1.59	1.70	1.67	1.56	1.59	1.41	1.70	1.80
취미	란	1.57	1.73	1.64	1.73	1.60	1.46	1.11	1.42	1.52	1.94	1.53
연예	기사	1.48	1.42	1.63	1.45	1.21	1.46	1.56	1.45	1.31	1.72	1.60
응답자수		계 585 (무응답) 2 포함	(117)	(75)	(56)	(20)	(125)	(27)	(71)	(29)	(18)	(45)

<표 I-4> 職業別 新聞記事 接觸度 順位

記事	職業 接觸度 順位	공무원	회사원	교사	기업주	상업	영세상	노동자	농업
		지방소식	1	4	5.5	2	3	5.5	7
사건기사	2	1	5	8	3	6	4	7	
물가	5.5	5.5	8	4	3	1	7	2	
경제	3.5	1	5	2	3.5	8	6	7	
사설	2	3	1	4	5	8	7	6	
연재만화	1	2	4	7.5	5	7.5	3	6	
스포츠기사	3	2	1	8	5	7	4	6	
광고	7	4	6	1	2.5	2.5	5	8	
가정	1.5	1.5	5.5	3	4	7	5.5	8	
취미	1.5	3	1.5	4	6	8	7	5	
연예	6	1	4.5	8	3	2	4.5	7	

<표 I-5>

經濟生活水準別 新聞記事 接觸度

記事	接觸度	平均 接觸度	經濟生活水準				
			上	中 上	中 下	下	評價不能
지방소식		2.60	2.58	2.57	2.65	2.53	2.47
국내정치		2.54	2.67	2.57	2.56	2.18	2.53
사건기사		2.51	2.25	2.50	2.55	2.49	2.89
국제정치		2.29	2.46	2.37	2.30	1.89	2.32
물가시세		2.16	2.08	2.15	2.18	2.30	1.95
경제기사		2.15	2.56	2.29	2.09	1.79	1.89
사설		2.14	2.35	2.26	2.08	1.77	2.32
연재만화		2.01	1.87	2.00	2.05	1.93	2.16
스포츠기사		1.92	1.94	1.98	1.90	1.68	21.7
광고		1.68	1.69	1.70	1.67	1.70	1.63
가정란		1.67	1.62	1.67	1.66	1.68	1.79
취미란		1.57	1.73	1.70	1.53	1.26	1.42
연재소설		1.55	1.60	1.47	1.61	1.47	1.58
연예기사		1.48	1.38	1.50	1.89	1.47	1.68
응답자수		계 585	(52)	(176)	(281)	(57)	(19)

<표 II>

프로그램別 接觸度

로그 區分 接	接觸 度 位	接觸 度	프 로 그 램 區 分	接觸 度 位	接觸 度
뉴 우 스	1	2.80	스 포 츠 중 계	8	1.96
일 기 예 보	2	2.64	민 속 음 악	9	1.86
지방소식	3	2.57	좌 좌 담	10	1.76
대 중 가 요	4.5	2.24	상 담 프 로	11	1.68
연 속 극	4.5	2.24	사 회 탐 방	12	1.65
물 가 시 세	6	2.18	고 진 음 악	13	1.50
시 사 해 설	7	1.99	외 국 어 강 좌	14	1.21

<표 II-1>

年齡別 프로그램 接觸度

프로그램	接觸 度	平均 接觸 度	年 齡				
			29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지방소식		2.80	2.52	2.58	2.61	2.58	2.40
연속극		2.24	2.33	2.35	2.14	2.20	2.45
민속음악		1.86	1.64	1.74	1.90	2.11	2.23
좌좌담		1.76	1.69	1.72	1.69	1.83	1.98
상담프로		1.68	1.59	1.72	1.70	1.54	1.32
사회탐방		1.65	1.74	1.61	1.61	1.55	1.50
고진음악		1.50	1.60	1.51	1.50	1.21	1.33
외국어강좌		1.21	1.80	1.51	1.44	-	-
응답자수		계 740	(112)	(260)	(243)	(95)	(40)

<표 II-2>

教育程度別 프로그램 接觸度

프로그램	接觸度 平均接觸度	教育程度					
		문맹	한글해독	국민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기예보	2.64	2.73	2.75	2.66	2.76	2.56	2.54
지방소식	2.57	2.08	2.35	2.56	2.60	2.67	2.61
연속극	2.24	2.18	2.32	2.32	2.32	2.26	2.04
민속음악	1.86	2.55	1.82	1.57	1.96	1.77	1.77
좌담	1.76	1.27	1.48	1.70	1.81	1.81	1.92
상담프로	1.68	1.18	1.42	1.59	1.78	1.84	1.70
사회탐방	1.65	1.00	1.30	1.59	1.65	1.81	1.78
고전음악	1.50	1.18	1.31	1.40	1.46	1.55	1.73
외국어강좌	1.21	1.00	1.04	1.04	1.16	1.10	1.57
응답자수	계 740 (무응답 2 포함)	(12)	(89)	(164)	(140)	(172)	(158)

<표 II-3>

職業別 프로그램 接觸度

프로그램	接觸度 平均接觸度	職業									
		공무원	회사원	교사	기업주	상업	영세상	노동자	농업	기타	무직
일기예보	2.64	2.73	2.69	2.32	2.67	2.62	2.59	2.73	2.81	2.53	2.74
지방소식	2.57	2.27	2.45	2.64	2.57	2.58	2.40	2.53	2.39	2.26	2.60
연속극	2.24	2.15	1.99	2.09	1.86	2.24	2.37	2.33	2.35	2.00	2.56
민속음악	1.96	1.92	1.81	1.55	2.10	1.89	1.76	1.73	1.98	1.69	1.83
좌담	1.76	2.28	1.97	1.82	1.86	1.71	1.61	1.57	1.59	1.84	2.00
상담프로	1.68	1.73	1.82	1.55	1.60	1.66	1.85	1.64	1.60	1.95	1.71
사회탐방	1.65	1.72	1.75	1.71	1.71	1.63	1.59	1.46	1.62	1.95	1.51
고전음악	1.50	1.60	1.65	1.71	1.31	1.38	1.35	1.42	1.59	1.95	1.31
외국어강좌	1.21	1.31	1.19	1.48	1.10	1.11	1.14	1.08	1.11	1.89	1.06
응답자수	계 740 (무응답 2 포함)	(109)	(71)	(56)	(21)	(154)	(50)	(139)	(54)	(19)	(65)

<표 II-4>

經濟生活水準別 프로그램 接觸度

프로그램	接觸度 平均接觸度	經濟生活水準					評價不能
		上	中上	中下	下		
뉴스	2.80	2.98	2.85	2.81	2.62	2.95	
일기예보	2.64	2.67	2.68	2.61	2.67	2.53	
지방소식	2.57	2.59	2.61	2.58	2.42	2.58	
대중가요	2.24	1.90	2.19	2.26	2.41	2.05	
연속극	2.24	1.92	2.16	2.29	2.31	2.26	
물가시세	2.18	1.88	2.11	2.15	2.29	2.05	
시사해설	1.99	2.41	2.10	1.97	1.63	2.37	
스포츠중계	1.96	2.29	2.07	1.96	1.64	2.11	
민속음악	1.86	1.82	1.91	1.84	1.83	1.68	
좌담	1.76	1.80	1.85	1.73	1.58	1.95	
상담프로	1.68	1.74	1.69	1.70	1.53	2.00	
사회탐방	1.65	1.73	1.68	1.66	1.48	2.05	
고전음악	1.50	1.88	1.67	1.44	1.28	1.37	
외국어강좌	1.21	1.41	1.30	1.18	1.05	1.47	
응답자수	계 740	(49)	(189)	(364)	(119)	(19)	